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5. 3. 6.(목)

호흡기 질환 주범 미세먼지, 도시숲 통해 잡는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산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7년까지 1인당 도시숲 면적을 15㎡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국제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에 발표한 ‘도시숲 증가와 호흡기 질환 관련 진료건수 감소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에서 조성한 미세먼지 차단숲 ‘곰솔누리숲’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를 조사한 결과 17년간(2006~2023)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85.2 $\mu\text{g}/\text{m}^3$ 에서 43.0 $\mu\text{g}/\text{m}^3$ 로 49.5% 감소했으며, 이 시기 주변지역의 호흡기 질환 관련 진료 건수도 36,709명에서 20,776명으로 43.4% 감소하는 등 도시숲이 증가할수록 진료 건수는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중국 북부 지난지역에서 도시숲이 대기질과 미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Atmosphere, 2024)에 따르면, 도시숲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일반 도심 지역보다 6.3~6.5 $\mu\text{g}/\text{m}^3$ 낮았으며, 오존 농도는 21~23 $\mu\text{g}/\text{m}^3$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도시숲 지역의 기온이 4.1~6.8℃ 낮고, 상대 습도는 12.9~13.4% 높아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미세먼지 차단, 도시열섬 및 폭염 완화,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해 2019년부터 기후대응 도시숲 588개소와 도시 외곽 산림의 맑고 찬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시키는 도시바람길숲을 17개 도시에 조성했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등굣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녀안심그린숲 279개소를 조성했으며, 올해에도 기후대응 도시숲 107개소, 도시바람길숲 20개소, 자녀안심그린숲 60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도시숲의 조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5월 국무조정실과 함께 전국 도시숲 조성사업 실태를 점검했으며,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및 검증 절차를 도입하고 산림청의 검토 및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2024년 6월에는 ‘기후 대응도시숲 등 조성·관리 현장 실무가이드’를 개정·배포했다.

김기철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국민 모두가 가까운 곳에서 숲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가치 있고 건강한 숲으로 육성해 도시숲의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산림보호국 도시숲경관과	책임자	과 장	김기철 (042-481-4223)
		담당자	사무관	박봉관 (042-481-4224)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